

# 1大學 1新聞체제의 기본골격 유지해야

柳 一 相

(建國大 新聞放送學科)

## 言論의 보편성과

### 大學新聞의 특수성

신문이 사회일반의 요구에 맞춰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듯이 대학신문도 대학사회의 특정한 필요에 의해 존립하는 하나의 社會的 制度이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세계와 사회의 실재를 전달하고 그와 관련한 인식, 정서, 사상, 의식을 반영하는 일을 한다. 대학신문도 역시 그렇다.

신문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현실성, 公示性, 정기성, 기록성 등을 그 특성으로 꼽는다. 그래서 신문은 가능한 한 신선한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해야 하고, 일반 공중들에게 관심을 갖는 내용을 공표해 주되 정보의 신속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간격을 좁히는 데 애써야 하며, 기사의 형태로 역

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경제사회의 신문들은 법률적으로는 자유로우나, 재무적 지원자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들이니 지원업무를 광고주와 구독자가 나누어 맡고 있다. 또한 신문은 특정한 일개인이 유능하다고 하여 훌륭한 신문으로 만들어질 리 없으며, 하나의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운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신문은 반드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그 조직체는 가치높은 정신적 창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신문의 역할로 볼 때 흔히 환경감시와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 오락의 제공과 문화의 유지·발전 및 시장경제사회에서의 소비촉매활동인 광고매개활동 등을 꼽을 수 있고 이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보와 지식,

의견과 사상 등이 지면을 채운다.

신문의 이와 같은 普遍性은 대학신문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학의 특수성에 따라 특수하게 재해석되거나 다른 기준의 도입으로 제점검되어야 할 것도 있다. 말하자면 대학신문이라는 하나의 사물은 大學의 特殊性과 언론의 보편성이 하나로 통일되어 그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이다.

대학신문도 신문의 특성들을 더욱 발전시켜 대학 내외의 새롭고도 중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하고, 많은 독자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더욱 결집된 집단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대학신문은 大學敎育의 「수단」이다. 그러기에 대학신문은 창의성을 고양하고 자립의 의지를 드높여 주된 독자층인 대

학생들이 전문지식과 폭 넓은 교양, 높은 덕성을 갖춘 지성인으로 자라도록 이끄는 역할과 함께, 현재의 세계가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양분인 비판정신과 탐구의 자세를 진작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신문의 협동적 작업조직과 신문발행을 위해 소요되는 財務費用의 안정적 공급이 대학신문의 특수성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첫째, 대학신문의 기자는 學生記者다. 이들은 학생인 동시에 기자이기 때문에 배울 권리와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자로서 배움터 전반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반영자요, 건전한 여론의 형성자이며, 세계를 향한 환경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학우들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위임받은 기자로서 정보의 원천에 용감하게 접근하여 치열한 취재로써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화답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문의 편집·제작에 참여하는 학생이기에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주간교수는 대외적으로 편집권을 대표하고 있고, 대내적으로 발행인인 대학 총·학장의 대리인으로서 사실상 대학신문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학생기자들이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유언론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책임으로부터 상당부분 면제됨에 비해 주간교수는 학교당국과 학생기자 사이에서 과중한 압력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주간교수는 자신이 감독하는 학생기자들이 저

지를 수 있는 謬報나 虛報 또는 사회적 無價値의 외설기사나 저질기사, 명예훼손적 기사 심지어는 國家機密 보도 등으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때 상당한 정도의 연대책임과 도덕적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

둘째, 대학신문의 발행에 소요되는 자금은 현재 대학당국의 보조금과 지면판매를 통한 광고료로 충당되고 있어서 학생독자로서는 無價紙인 듯한 인상을 받는다. 살펴보면 대학신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체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대학 운영제원이 조달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학생들이 등록금의 일부로써 우회된 형태의 신문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 된다. 대학신문과 대학생 독자 사이의 관계는 이처럼 간접적이기 때문에 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은 대학신문이 대학의 살아 움직이는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는데 대해 체계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학신문은 대학당국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그 운영자금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의 최종 부담자인 일반학생들의 대학신문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이 오히려 대학신문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위에서 살펴본 大學新聞의 特殊性은 이상적인 형태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의 지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대학신문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 특수성은 시장경제사회의 일반신문들이 갖는 보편적 성격과는 구별되는 특성으로서 대학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대학신문의 이 특수성을 더욱 발전시킬 때 신문일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대학에서 둘 이상의 종합신문을 발행하게 되면 편집을 책임진 주간교수의 수가 늘어야 하고, 신문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所要가 불가피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어떤 이는 複數新聞制가 되면 주간교수가 필요없다고 주장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회적·교육적 책임의 방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학생기자로서는 언론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타인의 법익침해와 사회적 가치의 침해에 대한 법적(民事的·刑事的)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전문적인 기자로서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의 지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교수가 엄연히 지도를 하는 상황에서 학생기자들이 책임없는 글을 함부로 기사화하고 대학구성원 개인의 인격이나 학문적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형편인데, 지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을 대학 내부로부터 허물어뜨리는 폭탄을 방치하는 꼴이 되고 대학신문에 대한 치외법권을 대학이 越權的으로 승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대학신

문의 특수성 가운데 하나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합리적인 방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거는 주간교수제가 학생들의 정서와 지나치게 유리된 일부 교수의 권위주의적 지도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대학신문의 二元化 조치 또는 多元化 계획 등은 바로 이처럼 오늘날 대학신문이 갖고 있는 특수한 장점의 효과를 매몰시키며, 대학인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는 다원주의적 신문체제라는 명분으로 대학의 자주성과 능동성을 다수결식 논의구조 속에 포위하여 대학이 가진 창조적 소수로서의 진보성을 희석하고 대학언론을 世俗化하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 대학언론의 競爭과 意見의 수렴

최근 서강대에서 벌어진 대학신문의 이원화는 대학신문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신문제작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심상치 않은 일이다. 보도에 의하면 서강학보 김순기 주간교수는 “현재 서강학보가 소수 운동권과 학생기자들만의 신문일 뿐, 전체 학생의 신문이 아니다. ... 현 학생기자들은 자기들의 신문을 따로 만들고 별도로 전 서강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학교·학생 모두의 신문을 만들자”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아울러 김교수는 “신문의 이원화가 학교신문·학생신문 식의

엄격한 구분이 아닌 매체다원화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민주화 추세에 걸맞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원자 역시 대학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즘의 대학생 지도가 形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본다. 김교수가 학생기자들의 지도에 고심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철없는 대학생들의 경망스러운 언론행태를 솔하게 보아왔던 대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어라고 위안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도교수 없는 대학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몰지각한 일부 학생의 무분별한 언어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한 오늘의 대학풍토를 감안할 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대학신문 다원화를 추진하자면, 신문편집권의 독립을 논하기에 앞서 대학신문의 물질적 토대와 교수의 指導條件에 대한 합의 및 대학신문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간의 원만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대학신문의 이원화 또는 다원화가 진행되면 대학당국의 자금지원 한계 때문에 대학신문의 광고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둘 이상의 대학신문이 존재할 때, 이를 지도하는 교수들 사이에도 세계관의 차이와 교육방침의 상이 가 나타나 마찰이 생길 수 있고 학내 매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이 뒤따를 수도 있다. 대학신문의 광고시장은 비교적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대학신문간의 치열한 광고 확보 경쟁은 주요 광고주인 동문기업가, 대학생 상대의 소비재 메이커, 屈指의 대기업들에게 짜증을 더해 줄 뿐 광고효과와 증대를 기약하기도 어렵다. 만약 1개 대학 다수신문간의 광고쟁탈전이 벌어지면 일반언론의 나쁜 관행인 부수늘리기 경쟁이나 선정성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이것은 대학신문의 黃色 新聞화를 가져오거나 학교당국 홍보매체로의 위상전환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어떤 이들은 대학신문들이 이념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대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지적이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신문에 대한 비판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理念的 偏向性을 지적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지나치게 지배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자들일 수도 있고, 대학인이 자신의 원소속계급이나 계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限界人(marginal person)이라는 의미에서 큰 문제는 안 된다. 오히려 일반의 사회언론매체들이 줄곧 보수세력의 이익을 대변해 왔고 진경한 진보언론의 공간이 협소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언론매체가 진보적 언론운동을 이끌고 사회변혁과 통일언론의 사회적 소명을 맡아온 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세는 한 쪽 날개로 날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안정된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적절할 수준에서 세력균

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내부에서 분출하는 민혁의 동인이 새로운 발전을 기약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만큼 대학 이외의 기성언론을 동원하거나 일부 보수적인 대학생들의 의견만을 확대하여 현재의 대학언론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낙인찍는 것은 대학을 하나의 성성한 생명체로 바로 세우는 일이 못 된다.

권력과 자본 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눈치를 보며 신문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일반사회의 언론매체와 달리 대학신문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바탕을 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특수한 매체다. 그래서 대학신문은 소수의 창조적 의견을 대변하고, 소수의 이해와 요구를 표현하여 ‘思想의 自由公開市場’을 형성해 주는 고전적 언론자유주의 마당으로 남겨져야 한다. 어떤 사상이 옳은지 그른지는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여과되고, 수많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체계화되어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이끌어가는 만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특정의 신념체계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언론규범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에서 이념의 편향성을 들어 대학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필자는 결코 대학신문이 학내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학내파벌을 조장하는 데 이용되거나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사학재단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재단과 학교당국을 괴롭히는 일부 대학신문들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재발 대학신문이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낱아빠진 ‘반공이데올로기’를 변조한烙印 찍기 선전논리에 의해 그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위축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모든 생물이 운동하며 변화한다는 세계발전의 합법칙성을 믿으며 과학하는 자제로 진보적 사회과학을 연마하는 사람들의 논변이나 주장이 비과학적인 온갖 미신과, 낡은 종교이데올로기에 짓눌린 사회일반의 언론매체에서 어떻게 지면을 얻을 수 있겠는가? 正論直筆을 서슴없이 휘두르는 순수양심 論客들의 정신적 노동을 조금이라도 同情해 주고, 그들의 창조적 노력이 역사발전에 가하는 편달의 의미를 이해해 준다던 대학인의 입에서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폭언이 대학신문의 위상에 가해지는 타격으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교육의 연장이기에

### 철저한 指導가 필요해

오늘 대학신문의 현실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학신문이 대학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조직으로서의 통합을 이루고 대학사회의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신문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의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대학신문도 나름데

로의 책임있는 언론이 되려면, 기자의 資質도 향상되어야 하고 함께 추구할 도덕적 志向點도 분명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발랄한 감수성에 근거하여 경박한 가십(gossip)을 일삼거나 근거없는 비방이나 경당스러운 사실의면을 하는 일은 대학신문의 특수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신문이 더욱 큰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찾지 않고 천박한 수준의 집단이기주의를 선동하거나 특정인이나 특정학과, 특정단과대학, 대학내 특정세력의 집단이익을 보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학신문이 사회적으로 보아도 분명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대학의 기본적인 권위를 해체하려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및 대학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들의 사회적 품위를 저하시키는 저절문화를 전파할 때에는 지도권을 발동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학생기자 자체의 倫理綱領을 제정하고 그 강령 속에 자신들의 과오를 자아비판하고 파면·해직 등 징계제와 공개사과·경고 등의 경징계를 주관 교수에게 권고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언론윤리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의 책임있는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만한 일이다. 특히 대학신문이 허위사실이나 왜곡보도의 수법으로 교수를 비롯하여 학내 특정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간의 존엄

을 침해한 경우, 當該 언론행위가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어긋날 때에는 일반사회에서 사 이비 언론행위가 철저히 단속되어야 하듯이 주간교수는 대학당국에 퇴학·정학 등의 적절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언론에 의한 피해자도 주간교수와 학생기자에게 민·형사상의 法的 責任을 묻는 단계로까지 언론피해 회복요구가 보편화될 수 있을 정도로 언론피해 구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대학언론은 그 특수한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한 짝인 것이다.

대학신문을 지도하는 주간교수들은 비록 힘들고 빛 안 나는 일이지만 지도를 포기하지 말고 一元化된 현행의 대학신문 발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학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 대학신문 기자의 선발·훈련·양성에 필요한 몇 가지 방향들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신문 일원화의 보완책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신문 기자의 선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1학년 학생으로 충당되는 수습기자의 수준을 2학년으로 올리고,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正記者를 선발하도록 하되 수습기간중에는 정의감, 언론의 자유와 책임 등을 숙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기자들이 대학내 언론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대학신문 기자선발 시험제도를 고쳐 대학신문 기자응모자격을 일정정도의 평균학점 이상자로 정하여 학생인 동시에 기자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무와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대학신문 기자직분이 대학생임을 포기하고 직업적 기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 이상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기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학생기자가 신성한 언론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도록 할 때, 현재 안고 있는 갖가지 장애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 학기에 3~4개월간 부업(part-time job)으로 대학신문의 기자직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업 이전에 언론인 직업의 특수성을 배우게 한다는 의미에서 학생기자들이 좋은 신문물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학신문의 재무적 후원인인 대학당국의 몫이다.

넷째, 신문방송학과의 설치된 대학의 대학신문은 신문방송학과의 신문관련 실습과 결합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주간교수직도 신문방송학 교수들이 맡고 학생기자 가운데도 신방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제의 인턴과정(internship)을 겪도록 함으로써 비록 대학신문의 현장에서라도 실무와 이론이 整合하는지 여부를 학생들이 스스로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검증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기자들의 뇌수에 자신들은 학생인

동시에 기자라는 인식이 刻印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상의 개선책을 보완하면서 대학언론의 정의로운 존립이 보장될 때, 그간 슬한 파행과 갈등으로 점철된 대학신문의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며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으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학신문 기자의 끊임없는 자질향상으로 일반사회언론에 신선한 동력을 공급하는 청년언론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점이 대학과 언론의 접점이며 대학의 이상실현에 다가서는 길목임을 믿기에 필자는 현재의 학내외 여건 아래서 편집권을 둘러싼 논쟁이 그치고, 계속 더 자유로운 대학신문이 지켜지려면 1大學 1新聞 체제의 安定化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의 시점에서 대학신문을 다원화하는 것은 통합을 위한 건전한 분열이 아니며, 대학신문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려는 세력들의 大學 言論 分割政策이라는 의심만을 받게 된다. 대학신문을 경쟁시켜 스포츠신문화하게 되는 역효과 못지 않게 대학신문이 대학당국의 단순홍보매체가 되거나 학생들의 작문연습공간으로 이용되는 것도 대학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미리 예측되는 단점들이 보완되기 어려운 것이 라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대학신문의 발행과 지도에 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시급한 것은 그래서 바로 오늘이다. ■